

브라질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김영철**

단독/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Kim, Young-Chul (2018), "Population Aging and Labor Market Changes in Brazi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Brazil's demographic changes, low fertility and mortality rates, and identifies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0 years of age. It also presents an analysis of the kind of changes which have occurred in labor market. Demographic structures are changing from a pyramidal to a spindle type, a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rapidly incr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while the birth rate is gradually lowered through changes in sociocultural awareness, higher education level and childbirth education. At present, population aging is affecting the levels of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in Brazil. These demographic impacts also differ according to region,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residence area and racial characteristic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has required macroeconomic and social policy changes.

Many experts and policy makers are concerned about the labor market shortage and the loss of economic growth power, and are encouraging women to enter the labor market as substitutes, but they still seem to have difficulty in overcoming on-the-job discrimination and wage inequality. Nevertheless,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r force will increase, particularly in the sense that most of the care and longevity economies are female-friendly. Free care work is transformed into a paid care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longevity can be said to lend to the needs of the economy. It is here suggested that it will expand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labor force, as well as the expansion of labor retention and labor market re-entry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The retirees are receiving basically in the form of a pension, even if the wage is low, they can accept the structure. So this has the risk of distorting the labor market for young people. However, it is positive in the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Young-Chul Kim is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latin@bufs.ac.kr).

sense that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can be directly affected by the economic effects at the stage where the pension recipients increase due to population aging.

Key Words: Brazil, demographic changes, population aging, care economy, longevity economy, labor market

들어가기

브라질은 1980년대에 의학 혁신으로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역학적 전환 (epidemiological transition)기에 접어들었다. 당시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시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30%로 감소했으며 출산율과 사망률도 낮아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 예측했던 인구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7%가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 여성 고령자가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다시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 재정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교육과 인력개발, 복지와 노인 주거, 보건의료, 노후소득 보장, 금융자산 시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브라질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첫째, 노동력 인구의 규모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기존 노동력은 노쇠화가 시작된다. 둘째, 연령계층별 저축률이 현재와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고연령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전체 사회의 저축률 감소를 초래한다. 고령인구들은 대체적으로 저축보다는 의료비, 소비재와 서비스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동력의 생산성 하락, 투자 하락, 세금과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Chang 2003, 15).

이와 같은 고령사회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으

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개도국들은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준비와 개혁,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저성장 기조를 변화시킬 정책과 제도,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과 의료 시스템 등을 완비해야 하는 다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브라질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인구 노령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 인구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돌봄 경제와 장수 경제의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브라질의 인구구조 변화의 진행 상황과 인구 고령화의 수준과 속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노인의 노동 참여 정책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브라질의 노동시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인구 고령화, 돌봄 경제와 장수 경제

인구 고령화는 저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 재정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생산 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및 저축률 하락에 따른 생산 자본축적의 감소가 발생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과 소비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또한 공적연금의 적자 요인 누적 및 부과식(Pay-as-you-go)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며, 노령인구 증가로 사회보장이나 의료비 지원과 같은 정부이전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국가 재정의 수입 및 지출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금 수급자 증가, 노인의료비 및 노인복지비의 상승으로 지출 증대 압력이 가중된다.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동정책으로는 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하는 양적인 전략인 출산정책, 이민정책과 함께 질적인 전략으로 여성과 고령자 노동력의 활성화가 가장 유력한 전략으로 제시된다(KDI 20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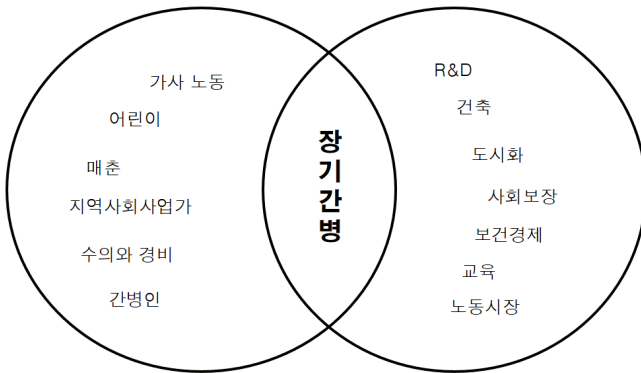
20세기의 노령사회에 대한 노인 정책(Política da velhice)은 대체적으로 연금, 주거와 레저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웰빙(Bem-estar)은 모든 경제 체제의 게임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단일기간모델(One-Period Model), 2)생애주기모델(Life-Cycle Model), 3)다기간모형(Multi-period model)과 같은 연금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이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노동을 했던 고령 노동자들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돌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많이 지출되었다.

브라질에서 노령화와 가족의 돌봄은 이원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과 노인이 연금이나 기타 보조금과 같은 것으로 가족 소득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등의 사회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은퇴자들을 부양하는 단순 금융 분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경제활동 인구보다 노령인구가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때문에 은퇴자와 사망 이후에도 지급되는 연금 지급이 어렵게 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 초기에 대부분의 관심은 사회보장 문제, 재정 문제, 무역과 금융 문제에 천착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다학문적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인구 노령화나 경제발전의 결과에 대한 것들로 이어지면서 노인의학(Geriatria)에 대한 논의로 심화되어 노인학(Gerontologia)으로 발전한다(Felix 2014, 45-46).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돌봄 경제(Economia do Care)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나타났고, 고령인구의 생활을 뒷받침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장수 경제(Economia da Longevidade)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돌봄 행위를 하는 측면과 돌봄을 받는 측면을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개념의 키워드들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은데, 공통분모는 역시 장기간의 간병 혹은 돌봄이라는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노동과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돌봄 경제(Care Economy) 장수 경제(Longevity Economy)



자료: Felix(2014), p. 57.

그림 1. 돌봄 경제와 장수 경제의 비교

장수 경제는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산하 비즈니스 연구기관인 ‘Innovation@50+’가 정의한 것으로 50대 이상의 인구집단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지출로 발생하는 경제활동 영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령인구는 과거 세대들 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역시 경제활동을 더 길게 할 수 있다. 옥스퍼드 경제학(Oxford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이미 건강관리를 포함한 소비재 및 서비스 지출에 총 4.6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¹.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소비하는 품목은 금융 서비스, 레스토랑 및 호텔, 기타 서비스², 건강관리, 유틸리티, 기타 비내구성 소비재³, 가솔린 및 기타 연료, 의류, 식료 잡화류, 기타 내구성 소비재⁴, 내구성 가정용품과 자동차 및 부품이었다⁵. 이러한 제품은 모든 세대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고령인구들도 기존의 소비패턴을 유지하

1 Oxford Economics(2013), “The Longevity Economy: Generating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for Business,” Oxford Economics, p. 4.
 2 교통, 교육, 레크리에이션, 커뮤니케이션, 전문직, 개별 케어, 사회/종교적 서비스, 가구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3 의약품, 게임, 애완용품, 가정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이 포함된다.
 4 레크리에이션 차량, 오디오/비디오 장비, 컴퓨터, 보석, 안경 및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5 Oxford Economics(2016), “The Longevity Economy: How People Over 50 Are Driving Economic and Social Value in the US,” Oxford Economics Ltd., p. 8.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건강관리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수 경제는 정통 경제가 개인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노령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비정통 경제의 비판을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경제학처럼 수익을 부정하지 않고 어떤 생산의 수익성이 필요하고, 고정자본의 혁신과 노동력 형성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Felix 2014, 56). 장수 경제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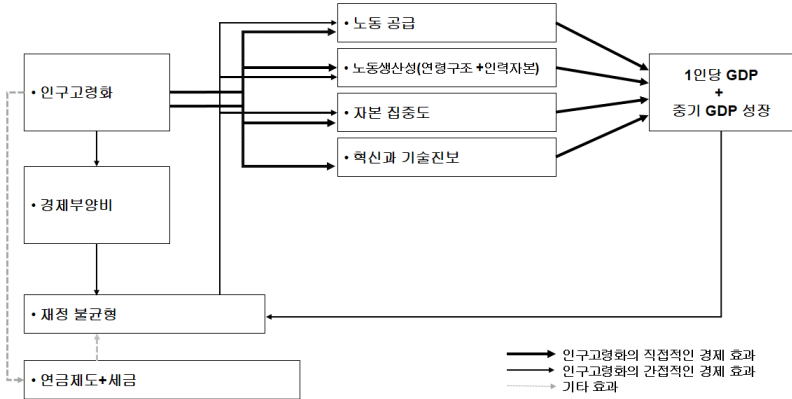
돌봄 경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돌봄 형태들을 포함한다. 많은 UN 출판물들은 ‘비시장 노동’(nonmarket work) 혹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work of social reproduction)과 동의어로 광범위하게 ‘무료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으로 정의한다. 개인과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과정으로 사회적 재생산이 매우 중요함에도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다(Folbre 2006, 185-186). 일부학자들은 ‘돌봄 노동’(Care Work)을 생산 현장이나 생산 경계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노동 과정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돌봄 노동에는 요리, 세탁, 쇼핑, 어린이, 가사, 간호, 수의, 노인 돌봄 등 경제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들이 포함된다.

노인은 ‘호모 불네라빌리스’(homo vulnerabilis), 즉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라는 인식에는 오랫동안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노령화(Envelhecimento Sustentável) 혹은 노인 웰빙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권리, 소득, 보건, 활동, 존경,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의 개념적 확대를 통한 조화와 세대 간의 공존(Convivência Intergeracional)이 필요하다(Felix 2014, 55).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출산, 경제성장, 노동시장, 연금 및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노동력 공급, 노동 생산성, 자본 집중도, 저축률과 자본의 한계 회수율, 기술진보와 혁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결과들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국가의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인 결과는 경제 부양비(taxa de dependência econômica)⁶, 예산 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재정이 직접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금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그림은 인구 고령화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의

6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백분비.

흐름도이다(Gomes y Pamplona 2015, 210).



자료: Gomes y Pamplona(2015), p. 211.

그림 2. 인구 고령화의 효과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의 효과는 장수 경제의 경제적 효과와 비슷한데, 직접적인 효과는 역시 50세 이상의 인구집단이 하는 지출과 소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50세 이상 인구 집단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망을 통해 경제활동이 확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자신들의 임금을 지출하게 하고, 소비재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임금과 연금 소득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과 의료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경제로 발전할 수 있고, 브라질은 고령인구들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브라질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추세

브라질은 발견 이후 전 세계 많은 민족과 국민들이 이주한 이민 국가이다.

포르투갈 식민기간에는 정복과 식민을 위해 포르투갈인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유입시켰으며, 독립 이후에도 포르투갈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브라질로 이주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 이후 189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노동력을 확보하고 내륙을 개발할 목적으로 대규모 이민을 유입했는데, 당시에 유입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넘었다. 1872년에서 1972년까지 100년간 약 5,000만 명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브라질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1930년부터 국제 이주는 줄어들고 국내 이주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민 역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최근 페루와 볼리비아와 같은 인접국가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80년에서 1990년에 들어서면 반대로 브라질인들의 해외 이민이 급증하게 되어 브라질은 기존의 이민 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전환된다. 이 시기에 브라질을 떠난 이민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0세-44세의 생산가능 노동력은 130만 명이나 되었다.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브라질 젊은이들이 타국으로 이주했던 두뇌유출(Brain Drain)이 실제 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브라질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의 수가 200만 명에서 많게는 3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으며, 2010년 국제이주기구(Organização Internacional para as Migrações)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려운 이유는 브라질인들이 남미공동시장(Mercosul)을 이용해 행정절차 없이 이웃국가에서 일하는 경우와 유럽과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질이 이민 순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10년에 브라질 지리통계청(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IBG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도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 출산율만 보면 2010년에 남동부 지역의 여성 1명당 1.7명이었

7 브라질의 인구조사는 1970년대에 와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조사들은 관련 통계청이나 행정기구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브라질의 인구조사는 다음의 세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는 10년 단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이다. 인구센서스(Censo Demográfico)를 기반으로 전체 브라질 국민들 개인과 가족의 정보들을 조사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과 별거 등 개인의 일신상의 변화를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청(Estatísticas do Registro Civil)이다. 가족관계등록청에서는 통과의례에 따른 개인의 신분상

는데,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2.4명에 달했다.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차이와 더불어 동일한 문화적 소속감, 동일한 언어, 통합된 교육 환경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출산율은 2000년에 2.4명에서 2010년에는 1.9명 그리고 2030년에는 1.5명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가 줄면서 인구 연령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5세 이하 인구가 2010년에는 30%, 2030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 보면 2000년에는 약 5,210만 명, 2010년에는 4,990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93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Vera and Schwanke 2012, 143).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들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면 양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고 증축한 교육 시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브라질 교육부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6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위해 9년간 실시하는 기초교육의 보편화, 2016년까지 4세와 5세 유아의 학교 출석의 보편화, 2020년까지 유치원 교육을 3세 이하 영아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교육계획(Plano Nacional de Educação)을 실시하고 있지만(Vera and Schwanke 2012, 143-144) 브라질의 교육의 질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년층인 15세에서 29세 인구도 과거의 출산율 저하로 2000년에 28.2%, 2010년에 26.7%, 그리고 2030년에는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숫자로 보면 2000년에 4,890만 명, 2009년에는 5,230만 명, 2030년에는 4,690만 명에 그치게 된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아마파(Amapá), 호라이마(Roraima), 아크리(Acre), 아마조나스(Amazonas)와 같은 북부 지역은 2020년 중반까지 이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인인 30세에서 59세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33.6%인 5,920만 명, 2030년에는 42.7%인 9,540만 명으로 증가한다. 고이아스 주를 제외한 남동부 주들은 전체 인구 대비 40%가 넘고, 북부지역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경제활동의 주요 연령대로서 향후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연령대이다.

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사망정보시스템(Sistema de Informações sobre Mortalidade, SIM)을 운영하는 보건부다. 사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자, 원인 등을 등록하여 인구 통계를 확보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과 내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통계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통계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기관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0세 이상 인구는 2012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4%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420만 명, 2010년에는 1,960만 명, 2030년에는 4,150만 명, 2060년에는 7,3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Bercovich and Madeira(1992)는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것을 “젊음의 물결”(Onda Jovem)이라고 정의했다. 현 단계 브라질의 노동력은 노동자당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정책의 결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노동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인구보너스(Bonus Demográfico)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인구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고급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출생율과 사망률 감소

이와 같은 변화는 브라질 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성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출생자 숫자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변하면서 인구의 연령대 구성도 변하고 있고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연령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0년에는 여성이 첫아이를 가지는 평균연령이 26.9세였으나 2030년에는 29.3세로 거의 3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동일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출산율 변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탈전통(Destradicionalização), 세속화(Secularização)와 개인화(Individualização)의 영향이다. 도시화와 산업화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나타나면서 출산율 감소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것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전에는 출산 이후 많은 유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산 문화가 있었으나 의학의 발전과 캠페인을 통해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다산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변했다.

코알리(Coale 1973)는 출산율 저하는 첫째, 출산은 합리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출산율 감소가 장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율 조절의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Ervatti, Borges and Jardim 2015, 32-33)⁸. 따라서 브라질의 출산율 저하는 물질적·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결과이다(Faria 1989). 브라질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파리아와 히우스-네투(Rios-Neto)의 연구는 여성 1명 당 자녀 출산 비율이 1960년대 평균 6명에서 2000년에 평균 2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출산 여성의 연령대도 15세에서 24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출산율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지표가 높은 남부와 남동부가 상대적으로 지표가 낮은 북부와 북동부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아래 표는 브라질 지리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서, 1940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산율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70년 동안 브라질 전체의 출산율은 4.26명이나 줄어들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북동부조차도 5.09명이나 줄었다.

표 1. 1940-2010년 브라질 출산율 변화

지역구분	전체 출산율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1년	2000년	2010년
전 체	6.16	6.21	6.28	5.76	4.35	2.89	2.38	1.90
북 부	7.17	7.97	8.56	8.15	6.45	4.20	3.16	2.47
북동부	7.15	7.50	7.39	7.53	6.13	3.75	2.69	2.06
남동부	5.69	5.45	6.34	4.56	3.45	2.36	2.10	1.70
남 부	5.65	5.70	5.89	5.42	3.63	2.51	2.24	1.78
중서부	6.36	6.86	6.74	6.42	4.51	2.69	2.25	1.92

자료: IBGE, Censo Demográfico 1940/2010.

사실, 브라질 인구 구조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왔는데 19세기에서 1940년대까지는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반면 1940년에서 1960년대에는 공공 정책으로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전염병, 호흡기 질환과 기생충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암과 심장병 같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 퇴화와 관련된 사망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모유 수유, 산전교육과

8 출산율 저하는 ‘가족의 규모와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변화’와 ‘개인화와 자수성가 (Autorealização)와 같은 문제로 인한 변화’라는 두 차례를 경험했다.

예방접종 캠페인, 지역 보건소 등이 증가해 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

전체 사망률은 1994년에 가족의제도(Programa Saúde da Família)를 도입하면서 더욱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높아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자연 사망률보다도 살인, 자살, 교통사고, 익사 및 낙마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변화들은 도시화 및 거대도시화(Metropolização)로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인구보너스(Bonus Demográfico) 혹은 인구배당(Dividendo Demográfico) 효과를 약화시킨다.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해 부양률(생산 가능 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급속하게 산업화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Vera and Schwanke 2012, 140-141). 인구보너스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개도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개도국 사회가 인구보너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낮아진다.

60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는 고령(Aged) 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는 초고령화(Super-aged) 사회로 분류한다(KDI 2006, 1). 연령기준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고령화 사회를 나눈다. 세계보건기구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60세, 선진국의 경우는 65세를 노령인구로 본다(Felix 2007, 1; Mendes et al. 2018, 15).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5년에 세계 6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9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고, 2050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2012년에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1.5%에 해당하는 8억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22%인 2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출산율 저하, 사망률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은 여전히 젊은 국가이지만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출생률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과학과 기술발전, 생명연장을 위한 새로운 약리학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노령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사회보장과 보건 분야의 공공정책 입안, 관리 및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

1970년에 인구조사를 보면 1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인구는 5%에 그쳤다. 사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획기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매우 높았다. 기대수명은 1930년대 41세에서 1960년대엔 55.7세로 높아졌으며, 출산율은 1940년대에 여성 1명당 6.2명이었으나 1970년대에는 5.8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1950년대에 41.8%였던 젊은 층이 2000년에 와서는 28.6%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950년에 2.4%에서 2000년에는 5.4%로 증가했다 (Vera and Schwanke 2012, 1).

브라질 인구 피라미드도 어린이와 젊은 층이 감소하고 성인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브라질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이 3.3%, 여성이 4.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높은 출산율은 유지하면서 사망률은 낮아져 안정적으로 젊은 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인구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이후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표 2. 60세 이상 인구의 변동 및 분포

	2000		2010		202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	7.8%	9.3%	8.4%	10.5%	11.1%	14.0%
60-64세	46.8%	53.2%	46.4%	53.6%	45.6%	54.4%
65-69세	45.8%	54.2%	45.2%	54.8%	44.5%	55.5%

70-74세	44.8%	55.2%	43.2%	56.8%	42.8%	57.2%
75-79세	43.9%	56.1%	40.2%	59.8%	39.9%	60.1%
80세 이상	39.9%	60.1%	34.7%	65.3%	33.8%	66.2%
노령인구수	6,533,784	8,002,245	7,952,773	10,271,470	11,328,114	15,005,250

2010년 인구 통계를 기초로 크로스와 쉬완케(Closs and Schwanke)가 브라질의 노령화 지수(Índice de Envelhecimento)⁹를 계산했는데 평균 44.8%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 지역이 5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남동부 지역으로 54.94%, 그리고 북부는 21.84%로 나타났다. 노령화 지수로 보면 남부와 남동부의 노령인구가 북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주별로 보면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이 65.47%, 히우 지 자네이루(Rio de Janeiro)가 61.45%, 반면 아마파(Amapá)의 경우는 15.45%, 호라이마(Roraima)는 16.57%였다. 그리고 197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노령화 지수는 26.8% 증가했다(Closs and Schwanke 2012, 445-447). 인구 연령대 분포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인구의 환경적인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비수준은 천연자원의 활용과 생산 수준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노령인구의 12%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만큼이나 많은 수의 노인들이 폭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우 지 자네이루에서는 최소 60,000여 명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중 16,000여 명은 가정 내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가족주의가 구조이기 때문이다(Centro de Estudos e Debates Estratégicos 2017, 16).

9 노령화 지수 = $P60/P15 \times 100$ 으로 산정된다. P60은 60세 이상 노령인구, P15는 15세 이하 인구를 나타낸다.

브라질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노동시장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는 첫째, 노동력의 양, 즉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이는 고령인구들이 증가하면서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력의 질, 즉 생산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육체적으로 퇴화된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Chang 2003, 15; 2004, 101). 중년과 노년 사이에 있으면서 여전히 건강한 활동을 계속하는 제3연령대(Third Age)의 노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인구구조의 변화기 혹은 인구구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 노동력의 참여율 확대와 둘째, 고령인구의 노동력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고령자의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생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비의 문제와 복지부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Chang 2004, 101).

또한 많은 수의 고령인구들이 적은 수의 젊은 인구로 대체되기 때문에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반면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노동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에 건강한 노인 노동력을 유지하거나 재투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Gomes and Pamplona 2015, 208).

아래 표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연령대별 고용인력 현황을 보여준다. 17세 이하에서 29세까지는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20세에서 49세까지는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50세에서 64세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4.3%가 증가했다. 전체 고용 인력도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 구조로는 전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표 3. 2010-2016년 연령대별 고용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5/ 2016년 변동률
17세 이하	436.648	502.235	531.618	538.426	533.881	426.157	334.720	-21.5%
18-24세	7.542.292	7.820.740	7.828.573	7.906.014	7.714.970	7.041.524	6.366.269	-9.6%
25-29세	7.565.286	7.738.086	7.695.450	7.765.329	7.710.983	7.233.133	6.734.061	-6.9%
30-39세	12.763.418	13.562.142	14.094.347	14.663.486	14.904.707	14.670.733	14.219.901	-3.1%
40-49세	9.499.998	9.913.632	10.157.126	10.428.627	10.626.574	10.454.459	10.217.972	-2.3%
50-64세	5.899.157	6.370.604	6.717.156	7.161.535	7.551.664	7.660.482	7.588.127	-0.9%
65세 이상	361.387	402.753	434.101	484.704	528.481	574.102	598.960	4.3%
기 타	169	439	341	312	250	217	188	-13.4%
총 계	44.068.355	46.310.631	47.458.712	48.948.433	49.571.510	48.060.807	46.060.198	-4.2%

자료: Ministério do Trabalho/RAIS.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전체를 보더라도 노동 인구의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고용에서 29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35.3%에서 29.2%로 감소했고 반면 30세 이상 고용 인력은 64.7%에서 70.8%로 증가했다. 2016년 고용 현황만 보면 24세까지 인력은 670만 명인데 비해 50세 이상 인력은 820만 명으로 제3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nistério do Trabalho 2017, 11).

2013년에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브라질 노동력의 고령화”(Envelhecimento da Força de Trabalho no Brasil)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¹⁰ 첫째,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기업의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 둘째, 기업들은 개인의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셋째, 어떻게 기업들이 인적 자본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넷째,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질문에 응답한

10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기업 중에 국내기업이 70%, 대기업과 중규모기업이 68%였다. PwC e a Fundação Getúlio Vargas(2013), “Envelhecimento da Força de Trabalho no Brasil,” São Paulo, p. 6.

기업은 98개였으며 노동자들의 연령대 비율은 아래와 같이 33세-44세가 4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 산업별 설문 참여기업과 연령대별 비율

구분	참여비율	연령대	비율
가공 산업	21%	18세-29세	29%
서비스	20%		
에너지, 공공 서비스, 광업	16%		
금융 서비스	13%	30세-44세	46%
엔지니어링과 건설	8%		
기타	7%	45세-64세	24%
기술, 정보, 정보통신	6%		
소비와 소매	5%	65세 이상	6%
보건	4%		

자료: PwC e a Fundação Getúlio Vargas(2013), p. 7.

참여 기업의 37%만이 고령 노동력이 부족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외 50%의 기업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젊은 노동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한 41%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고령 노동력이 젊은 층의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데 투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4%가 고령 노동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충분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지식 관리에는 22%, 멘토링에는 50%, 직업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브라질 기업들은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노동시장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의 역사-문화적인 문제, 근대성의 문제, 금융 세계화, 높은 수준의 비공식화, 사회적 불평등, 노동력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노동력 간 이질적이고 이중적인 특징이 있으며, 노령인구 역시 지역, 거주 구역, 인종, 학력과 성의 차이가 너무 다양해 이질적인 집단이다. 노인층이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유지하려하거나 재진입하려는 노력은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한다. 즉 고학력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들의 직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Gomes and Pamplona 2015, 220).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인데,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성 노동에 대한 문화적인 수용 등과 같은 가족과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의 영향이다. 둘째는 임금과 일자리 차별과 같은 성차별의 문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노동 참여는 차별이 심해지면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공식과 비공식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불균형도 포함된다(Pereira, dos Santos and Borges 2005,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여성화(feminização)는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피임 방법 활용으로 출산율이 저하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보육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위기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추세는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이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Pereira, dos Santos and Borges 2005, 3). 이러한 환경이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시켰다면, 인구구조 변화가 고령 노동을 대체할 노동력으로 여성을 주목하고 있다. 여성 노동력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낮고 남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용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와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면, 1943년 통합 노동법(Consolidação das Leis Trabalhistas, CLT)이 발효되면서 여성들의 고용 활동이 시작되었고, 1944년에는 특정한 경제활동에 한해 18세 이상 여성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통합 노동법이 수정되었다. 1940년대에 발표된 노동법은 군부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 브라질 여성 중 10%가 일을 했고, 84.1%는 가정주부이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5.9%는 직업이 없었다. 1970년대에는 섬유산업 외에 자영업이나 피고용자로서 농업분

야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꾸준한 노동시장 참여와 노력으로 결국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1988년 헌법에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헌법 제1장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진출과 노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은 노동권을 강조하면서 브라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이 기반이 되어 1990년대 브라질 여성의 노동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진입하고, 가족 내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생산구조가 변했다.

브라질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에 공식시장의 40.8%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력이 2016년에는 44%를 넘어섰다. 이런 성장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일과 가사의 균형을 요구받는 등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코칭 방법론의 도구와 기술이다¹¹. 전국 경제활동 등록부(Cadastro Nacional de Atividades Econômicas)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판매원, 공공행정, 식당과 간병인 등이었다.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일하는 분야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건설과 같은 건설업이었다¹².

인구 고령화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브라질 인구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고령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전환시킬 수 있다. 절대적인 인구구성에서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여성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공식 노동시장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 노령화 사회의 새로운 환경은 돌봄 경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돌봄 경제의 주요 내용들은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에서 보면 여성 노동이 더 적합한 구조이다. 또한 여성 노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11 “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accessed 2018.03.26.], <https://www.ibccoaching.com.br/portal/mercado-trabalho/mulher-no-mercado-de-trabalho>

12 A evolução d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IBGE가 실시한 전국 가구 실태조사 (Pesquisa Nacional por Amostra de Domicílio).

때문인데, 예를 들어 무료 돌봄 노동으로 정의되던 영역을 유료화하거나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돌봄과 관련된 직업의 발전, 그리고 돌봄의 상업화(mercantilização)와 아웃소싱(externalização)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진입한 결과이다. 상업화가 되면서 보이지 않고 무료라고 인식되던 돌봄 노동이 직업으로 정착되었다¹³.

셋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학력 인력이기 때문에 21세기 산업구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2017년에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글로벌 연구 환경의 성” 연구에서 연구대상 국가들인 미국, 유럽, 영국,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와 브라질 중에서 브라질이 성 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여성이 발표한 논문은 11% 증가해 전체 발표 논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여성이 발표한 논문이 153,967편에 달했다¹⁴.

넷째, 인구 고령화로 여성들이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사도우미나 일일 노동자, 상업부분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건 공무원(간호사나 보조원), 교육(유치원 및 초등 교사), 용역서비스(사무원이나 비서), 상업(점원이나 계산원), 전문적인 돌봄 노동(아기 돌보미, 간병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인구 고령화로 은퇴자들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Hirata 2016).

다섯째, 흑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인종 편견이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흑인 여성은 고용 기회와 임금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흑인 여성들이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임금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은 남성에게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들이 지배적이다.

13 Hirata, Helena(2016), “Mulheres brasileiras: relações de classe, de ‘raça’ e de gênero no mundo do trabalho,” [accessed 2018.03.29.], <http://journals.openedition.org/confins/10754>

14 Sims, Shannon(2017), “Surprising New Study: Brazil Now a Global Leader in Gender Equality in Science,” [accessed 2018.03.29.], <https://www.forbes.com/sites/shannonsims/2017/03/08/surprising-new-study-brazil-now-a-global-leader-in-gender-equality-in-science/#39f969bd6f44>

고령인구의 보호와 노동

고령인구의 노동정책은 첫째는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시장 합리화를 통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Chang 2004, 103). 이러한 주장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브라질의 고용정책도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개념적인 부정확성이나 정치적 논쟁이 진행되면서 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을 위한 소득, 활동과 노동의 기회, 부의 분배를 개선하려면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할 정부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족할 만큼 직업을 얻지도 못하고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집단과 노동시장에서 부당하게 처우 받는 특정한 집단을 위한 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Gomes and Pamplona 2015, 223-224).

비정부 기구인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Help Age International)¹⁵이 발표하는 2015년 세계 노인 복지지표(Global AgeWatch Index)에서 브라질은 56위를 차지했는데, 2014년 3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지표는 소득 보장, 건강 상태, 능력과 환경 마련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은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2,350만 명인데 81.9%가 연금과 기타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 남성은 86.1%, 여성은 78.5%가 사회보장 지원을 받고 있어 전체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여성 노인의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농촌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특별보험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 마련은 87위로 54.6%에 그쳤는데, 2014년 인권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가 27,178건에 달했다¹⁶.

2003년에 60세 이상 노인들의 권리를 정하는 노인법(Estatuto do Idoso)¹⁷이

15 1983년 캐나다, 콜롬비아, 케냐, 인도와 영국이 전 세계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다. 1993년 처음으로 헬프에이지 케냐에서 노인들에 대한 참여연구를 실시했고, 2012년부터는 세계 노인 복지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Help Age International, [accessed 2018.03.28.], <http://www.helpage.org/>

16 “Commentary on Brazil’s Domain Ranks in the 2015 Global AgeWatch Index,” [accessed 2018.03.28.], <http://www.helpage.org/download/55eed528605b2>

제10,741호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가족, 공동체, 사회 및 공공권력의 역할을 통해 노약자가 절대적 우선권과 생명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건강, 식량, 교육, 문화, 스포츠, 레저, 직업, 시민권, 자유, 존엄성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법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노인 기준에 준해서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적, 생물학적인 발전으로 육체적으로 더 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노인으로 간주한다. 노인법은 노인에 대한 규정, 노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사회적 책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전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까지 정하고 있다(Centro de Estudos e Debates Estratégicos 2017, 29).

또한 노인법 제26장에서는 물리적·지적·심리적 조건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문화와 노동을 다루고 있다. 노인을 채용할 경우 공채에서 최대 나이 제한을 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노인들을 위한 정규 및 유급 활동을 통한 특별 전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노인법을 여겼을 때 처벌 규정도 정하고 있다. 첫째는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 보건과 존엄성이 위협에 노출되었거나, 필수적인 음식과 보살핌을 빼앗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두 번째는 나이 때문에 어떤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의 접근을 방해할 때도 처벌받는다. 세 번째는 노인을 나이로 인해 노동이나 일에서 배제할 때도 처벌받는다.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의 보건의료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때도 처벌받는다. 다섯째,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이익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활동에 참가할 법적 권리를 이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지연시킬 경우도 처벌받는다. 여섯째,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시민활동 제안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료들을 거부했을 때도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Centro de Estudos e Debates Estratégicos 2017, 30-31).

고용노동부의 연간 사회정보 보고서(Relação Anual de Informações Sociais)는 고용과 해고를 등록하는 곳인데, 모든 자료들은 나이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인구의 공식 노동시장 참여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자료에

17 “LEI no 10.741, de 1º de outubro de 2003,” [accessed 2018.03.21.],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2003/110.741.htm

따르면 전체 공식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총 4,745만 9천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 노동자는 2.44%에 해당하는 1,157,000명이었다. 민간기업 노동자가 715,500명이었고, 공무원이 441,900명이었으며, 남성은 775,400명이었고, 여성은 382,000명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441,000명, 서비스가 365,000명, 제조업이 107,500명, 상업이 104,000명으로 나타났다(Secretaria de Direitos Humanos 2015, 119).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이고 육체노동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분야에 고령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체육부가 고령인구의 여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작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건강한 삶 프로그램”(The Healthy Liv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노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인권사무국과 다른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보건정책으로 가족건강 팀(Equipe de Saúde da Família)과 노인 보건 지원센터(Centros de Referência em Assistência à Saúde do Idoso), 사회복지정책으로 공동생활센터(Centros e Grupos de Convivência), 노인 장기입원 센터(Instituições de Longa Permanência), 주간 노인 돌봄 센터(Centros-Dia), 대피 가정(Casas-Lar), 공동생활(Repúblicas), 자택 요양(Atendimento Domiciliar), 현금 혜택 프로그램(Benefício de Prestação Continuada, BCP)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 안정 및 보장과 노동정책으로는 은퇴자 연금과 사망 연금, 교육, 레저, 관광 및 스포츠 정책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 디지털 포용, 그리고 공공 고등 교육 기관과 사립학교의 노인 개방 대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오면서

인구의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왔지만 개도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인구 노령화는 노동시장, 교육과 인력개발, 복지와 노인 주거, 보건의료, 노후소득 보장, 금융자산 시장 등에서 정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관점의 경제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확대시켰다.

돌봄 경제는 개인과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장수 경제는 50대 이상의 인구집단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지출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측면이었으나 장기 간병이라고 하는 공동분모를 지니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도 돌봄 경제와 장수 경제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과 같았다.

본고는 브라질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를 분석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 높은 교육 수준과 출산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방추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도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거주지역과 인종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인구조사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인 제3연령대의 증가는 2030년 이후 브라질 사회가 맞이할 고령사회를 예견하게 한다.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노인 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력 부족, 그리고 경제성장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대체 인력으로서, 혹은 질적인 전략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자체와 임금 차별 등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경제와 장수 경제의 대부분이 여성 인력 친화적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무료 돌봄 노동이 유료 돌봄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며 동시에 장수 경제가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력의 진출과 더불어 노인 노동력의 노동 유지와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은퇴자들의 재진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이던 연금을 받고 있어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어 젊은 층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는

단계에서 여성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인구 고령화는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인구보너스를 앗아가기 때문에 경제성장 기회를 잃어버리는 현상으로 진행된다. 구조조정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성장의 10년”으로 전환 시켰듯이, 인구보너스를 회복할 수 있는 질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양적인 전략인 출산, 이민, 노동 및 사회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Baldoni, A.O.L and L.R.L. Pereira(2011), “O impacto do envelhecimento populacional brasileiro para o sistema de saúde sobre a óptica da farmacoepidemiologia: uma revisão narrativa,” *Revista de Ciências Farmacêuticas Básica e Aplicada*, Vol. 32, No. 3, pp. 313-321.
- Camargo, Orson(2018), “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accessed 2018.03.26.], <https://www.ibccoaching.com.br/portal/mercado-trabalho/mulher-no-mercado-de-trabalho/>
- Centro de Estudos e Debates Estratégicos(2017), *Brasil 2050: desafios de uma nação que envelhece*, Brasília: Edições Camara.
- Chang, Ji Yeun(2003), “Labor Market and Employment Policy in Population Aging(I),” Korea Labor Institute, Seul.
- _____(2004), “Labor Force and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7.
- Clemente, Ganz Lúcio(2014), “Mulher, mercado de trabalho e desigualdade,” [accessed 2018.03.17.], <http://brasildebate.com.br/mulher-mercado-de-trabalho-e-desigualdade/>
- Closs, Vera Elizabeth and Carla Helena Augustin Schwanke(2012), “A evolução do índice de envelhecimento no Brasil, nas suas regiões e unidades federativas no período de 1970 a 2010,” *Revista Brasileira de Geriatria e Gerontologia*, Vol. 15, No. 3.
- Ervatti, Leila Regina, Gabriel Mendes Borges and Antonio de Ponte Jardim(2015), *Mudança Demográfica no Brasil no Início do Século XXI*, Rio de Janeiro, IBGE.
- Felix, Jorgemar Soares(2007), “Economia da Longevidade: uma revisão da bibliografia brasileira sobre o envelhecimento populacional,” Artigo apresentado no VIII Encontro da Associação Brasileira de Economia da Saúde, Abres.
- _____(2014), “‘Economia do care’ e ‘economia da longevidade’: o envelhecimento populacional a partir de novos conceitos,” *Argumentum*, Vol. 6, No. 1, pp. 44-63.
- Folbre, Nancy(2006), “Measuring Care: Gender, Empowerment, and the Care Econom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7, No. 2.
- Fragoso, Carolina(2015), “A evolução d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http://www.rhportal.com.br/artigos-rh/a-evolucao-da-mulher-no-mercado-de-trabalho/>
- Gomes, Patricia Silva, and João Batista Pamplona(2015), “Envelhecimento populacional, mercado de trabalho e política pública de emprego no Brasil,” *Economia e Gestão*, Vol. 15, No. 41.

- Hirata, Helena(2016), “Mulheres brasileiras: relações de classe, de ‘raça’ e de gênero no mundo do trabalho,” [accessed 2018.03.29.], <http://journals.openedition.org/confins/10754>
- Kalache, Alexandre(1987), “Envelhecimento populacional no Brasil: uma realidade nova, caderno de saúde pública,” pp. 217-220.
- KDI(2006), “Economic and Social Effects and Challenges in Population Aging,”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ul.
- Mácia(2018), “O idoso no mercado de trabalho,” [accessed 2018.04.01.], <http://www.administradores.com.br/artigos/academico/o-idoso-no-mercado-de-trabalho/109289/>
- Mendes, Juliana Lindonor Vieira et al.(2018), “O aumento da população idosa no Brasil e o envelhecimento nas últimas décadas: uma revisão da literatura,” *Revista Educação, Meio Ambiente, e Saúde*, Vol. 8, No. 1.
- Ministério do Trabalho(2017), *Relação anual de informações sociais (RAIS) 2016: análise dos principais resultados*, Brasília.
- Miranda, Gabriella Morais Duarte, Antonio da Cruz Gouveia Mendes and Ana Lucia Andrade da Silva(2016), “Population Aging in Brazil: Current and Future Social Challenges and Consequences,” *Revista Brasileira de Geriatria e Gerontologia*, Vol. 3, No. 19, pp. 507-519.
- Nasri, Fabio(2008), “O envelhecimento populacional no Brasil,” *Einstein*, Vol. 6, No. 1, pp. 54-56.
- Pereira, Rosângela Saldanha, Danielle Almeida dos Santos and Waleska Borges(2005), “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Jornada Internacional de Políticas Públicas*, UFMA.
- PwC e a Fundação Getúlio Vargas(2013), *Envelhecimento da força de trabalho no Brasil*, São Paulo.
- Rolim, Lilian Nogueira(2018), “A inserção da mulher no mercado de trabalho brasileiro,” [accessed 2018.03.25.], <https://www.cartacapital.com.br/blogs/brasil-debate/a-insercao-da-mulher-no-mercado-de-trabalho-brasileiro/>
- Secretaria de Direitos Humanos(2015), *Mapa das políticas, programas e projetos do Governo Federal para a população idosa*, Brasília: Secretaria de Direitos Humanos da Presidência da República.
- Shannon, Sims(2017), “Surprising New Study: Brazil Now a Global Leader in Gender Equality in Science,” [accessed 2018.03.29.], <https://www.forbes.com/sites/shannonsims/2017/03/08/surprising-new-study-brazil-now-a-global-leader-in-gender-equality-in-science/#39f969bd6f44>
- Ugino, Camila Kimie and Rosa Maria Marques(2012), “The Brazilian Pension Reforms under the Neoliberal Pressure,” *Textos and Contextos*, Vol. 11, No. 1, pp. 8-23.

“Commentary on Brazil’s Domain Ranks in the 2015 Global AgeWatch Index,”
[accessed 2018.03.28.], <http://www.helpage.org/download/55eed528605b2/>

“Lei no 10.741, de 1º de outubro de 2003,” [accessed 2018.03.21.],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2003/110.741.htm

Help Age International, [accessed 2018.03.28.], <http://www.helpage.org/>

Article Received: 2018. 04. 10.

Revised: 2018. 05. 11.

Accepted: 2018. 05. 14.